

김 광 섭 의 초 기 시 연 구

교 양 과
조 교 수 장 선 희

I. 序 言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대 시사에서 저항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시인들이 '한용운(1879~1944), 이상화(1901~1943), 이육사(1904~1944), 윤동주(1917~1945)'¹⁾이다.

저항이라는 말은 '어떤 힘이나 권위나 구도덕(舊道徳) 같은 것에 굽히거나 따르거나 하지 않고 거슬러 버티는 것'²⁾을 뜻하는데 시인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필연적으로 저항적이어야 하며 또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내면에 숨어 있는 편협되고 불만스러운 많은 부분들과 시인이 처해 있는 외부적 상황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비판의식 및 그에 대한 개선의 강렬한 욕구,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성에 대한 괴로움으로 시인은 언제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저항의 대상이 뚜렷하고 저항의 명분이 분명할 때에 시인의 저항의식과 이를 표출시키는 시정신은 한층 치열해 질 것이다.

우리 문학에서 저항문학은 일반적으로 일제 치하에서의 항일 문학을 일컬어 왔는데 정치·사회·경제·문화등 모든 면에서 침략해 왔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완전한 말살을 기도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서 대항했던 시인들과 그들이 쓴 시작품들이야말로 확실한 저항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직³⁾은 일제하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저항시를 ① 다만 우리말로

1) 김병익 外,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p.233. 김윤식, 「한국근대작가 논고」, 일지사, 1985.

2)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0.

이루어진 작품들 ② 그 형태와 구조에서 독특한 지성·상상력의 개입이 확인되는 작품들 ③ 그 구조가 분석되는 경우 의미내용의 기저가 항일 저항쪽에 놓여지고 있는 작품들로 정의한 바 있다.

강창민⁴⁾은 위의 4사람의 행적을 제외시키고 시만을 살펴볼 때 '저항시'라고 확고한 단정을 내릴 수는 없고 엄밀하게는 '저항한 시인이 쓴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를 통한 구체적인 저항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저항정신이 암시적·묵시적으로 시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 '저항시인'으로 구분한다 하면서 저항시인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시인의 전기적 사실에 있으며 이차적으로 시에 표상된 정신 곧 시정신에 의해 재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저항시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시와 행동의 일치가 문제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4사람의 시인들은 모두 옥고를 치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만해는 17세때에 이미 동학 의병운동에 가담함으로써 혁명생활을 시작하는데 1919년 3·1 독립운동때에는 불교계를 대표하여 33인의 하나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1922년에 풀려나는 등 그의 독립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끈질긴 저항정신과 조국 독립에의 일관된 정열과 의지는 만해의 삶 그 자체였다.

상화는 1919년 3.1운동때 백기만등과 대구 학생 봉기를 주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1927년 의열단 이종암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었으며 1937년에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형님 이상정 장군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일본 관헌에게 구금되는 등 독립운동에 끊임없이 관계하였다.

육사는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투사로서의 활동이 더 많았는데 1925년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고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관련되어 형원기, 아우 원일과 함께 3형제가 2년 7개월의 선고를 받아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38년 대구 격문 사건등에 연루되는 등 무려 17회의 옥고를 치르고 북경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그의 아호인 육사(陸史) 또한 대구형무소 수감번호 '264'에서 따 왔을 정도로 육사는 열렬한 독립투사였다.

동주는 문단인도 아니었고 독립투사도 아니었는데 1941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중 1943년 귀향 직전에 항일운동의 혐의를 받고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흔히 저항시인의 범주를 규정할 때 운동주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그가 앞서의 시인들처럼 직접적인 항일운동을 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저항시'와 '저항시인'에 대한 개념을 시인의 행적과 그들이 쓴 시에 나타나는 저항정신으로 규정한다 할 때 일제 하에서의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언급하는 20년대의 한용운·이상화와 40년대의 이육사·운동주의 중간지점인 30년대에는 김광섭이 거론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와 민족의 상실과 말살정책이란 최악의 역사적 현실속에서 시대와 민족의 가장 예민한 촉수여야 할 시인의 역할이 너무도 회미했던 30년대에 그의 행적에 '드

3) 김용직,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9, p. 367.

4) 강창민, 「육사시 연구-시 정신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P. 172

러난 삶'과 그의 시에 '드러난 정신'이 모두 저항시인과 저항시의 범주에 해당되는 김광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김광섭 문학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산의 문학을 시인의 대사회인식이라는 시인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 범주는 국가와 민족의 상실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일제하에서의 행적과 작품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평온시보다 위기에 처할수록 시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 보다 극명해 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산의 생애 및 시작활동을 통해 김광섭 문학의 저항성을 고찰하고 그의 초기 시작품들을 통해서 김광섭 시의 특질을 추출하여 30년대 문학에서 이산문학이 갖는 위치를 재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2. 研究史의 檢討

怡山 金玟燮은 생전에 이룩했던 문학적 성취에 비해 마땅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산 문학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로 손종호⁵⁾는 첫째, 이산 문학이 30년대 후반기 문학의 어떤 유파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시경향의 이질성으로 소외되었으며 둘째, 이산의 전기적 요소가 가져다 주는 문학외적 중압감 때문이며 셋째, 이산문학 자체의 전개 과정에 내재된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이산문학에 관한 평가들을 분류해 보면

① 작품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적 관계의 매카니즘 속에서 어떤 작품의 의미를 찾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역사주의적·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산 시의 주제의 변천과 시적 전개과정을 시대상황이나 개인사의 변모 과정과 연관하여 연구하는 경우

② 문학 작품을 역사나 사회·작가로 부터 분리하여 자율적 실체로써 파악하고 역사적 현실이나 사상성 보다는 작품 자체의 형식 특성이나 어떤 특정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형식주의적 방법론을 적용시켜 연구하는 경우

③ 이산과 다른 시인과를 비교시켜 이산문학의 특성과 본질을 규명코자 했던 비교주의적 연구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① 역사주의적·사회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했던 논문들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산의 행적이나 당시의 시대 상황이 괄목할 만하여 작품과의 관련성 또한 밀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전기적 연구방법을 충실히 적용한 논의로는 장백일⁶⁾의 "김광섭론 - 傳記·시세계 탐색"이 대표적이며 염무웅⁷⁾의 "김광섭 小論", 최인호⁸⁾의 "김광섭론", 조태일⁹⁾의 "시인의 삶과 민족-이산 김광섭

5) 손종호, 「김광섭 문학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pp.1~2.

6) 장백일, 「한국 신문학 특강」, 관동출판사, 1983.

7)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신서 23, 창작과 비평사, 1984.

8) 최인호, 「김광섭론」, 홍기삼 외, 「한국 현대 시인 연구」, 태학사, 1989.

시인의 경우”, 황헌식¹⁰⁾의 “암흑기의 묵시문학 - 8·15전까지의 시를 중심으로 ” 등과 김광섭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석사논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문학작품 자체의 분석과 특성의 추구를 통해 이산의 시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형식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했던 경우에는 손종호¹¹⁾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 존재의 재발견 혹은 사랑과 평화의 각성”에서 이산시의 특징으로 주체의 다양성과 그 변모과정을 추적하였고 김해성¹²⁾은 이산의 시에서 발견되는 지성적 시관의 탐구에 주력하였으며 한계전¹³⁾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통하여 이산이 도달한 달관의 세계관을 밝혀 내었으며 정태용¹⁴⁾은 “김광섭론”에서 이산의 시에 나타나는 추상성을 해방 전의 시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신경림¹⁵⁾은 “김광섭론”에서 이산을 민족시인·애국시인으로 부르는 것이 그의 전기적 이력 때문만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에 걸친 지적인 관념성을 표출하는 시를 통한 명실상부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김현승¹⁶⁾은 “김광섭론”에서 이산 시의 결합으로 지적되는 표현의 관념성이 사상성을 강조하는 지적인 시가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옹호하였다.

③ 이산과 다른 시인을 비교하여 이산문학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비교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던 경우로는 신선규¹⁷⁾가 “流水와 觀照”에서 소월과 이산의 시를 각각 심정의 시와 지성의 시라고 비교하면서 우리 시의 전통을 열어 준 시인으로 두 사람을 평가하였고 조병춘¹⁸⁾은 “김광섭과 심훈의 저항시”에서 30년대의 저항시인으로 김광섭과 심훈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용직¹⁹⁾은 해외문학파 후기동인으로 김광섭을 소개하면서 이산 시의 특징을 김진섭의 수필에 비교하여 해외문학파의 특징이 이산의 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였으며 채규판²⁰⁾은 “김광섭과 김현승”에서 다같이 서구적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두 시인의 유사점과 이질점을 비교하였다.

이외에도 김광섭 문학의 총체적 연구로써 손종호²¹⁾의 「김광섭 문학 연구」가 있고 김광섭 본인의 진술로 주목되는 “관념과 미학과 현실 - 이산 김광섭씨와의 대

9) 조태일, “시인의 삶과 민족”, 「창작과 비평」, 1977. 가을.

10) 황헌식, “암흑기의 묵시문학”, 「창작과 비평」, 1975. 겨울.

11) 한국 시문학회편, 「한국 현대시 작품 연구」, 학문사, 1989.

12) 김해성, 「현대 한국시사」, 대광출판사, 1987.

13) 한계전,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정한모·김재홍,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 1983.

14) 정태용, 「한국현대시인 연구·기타」, 어문각, 1976.

15) 신경림,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1975. 가을.

16) 김현승,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1969. 봄.

17) 신선규, “流水와 觀照 - 김소월과 김광섭에 대하여”, 「자유문학」, 1958.10.

18) 조병춘, 「한국현대시사 - 신시에서 청록파까지」, 집문당, 1980.

19)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下, 학연사, 1986.

20) 채규판, 「한국 현대 비교 시인론」, 탐구당, 1987.

21) 손종호, 「김광섭 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화”²²⁾와 자유문학에 1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나의 獄窓日記”²³⁾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김광섭에 대한 작품적 평가는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기시에 대한 작품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김광섭을 ‘저항시인’ 또는 ‘민족시인’으로 평가 했던 것 또한 일제하에서의 이산의 행적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평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II. 略傳 및 怡山의 詩世界

1. 略傳

이산 김광섭(1905-1977)은 1905년 9월 22일 부친 寅濬과 모친 盧玉童사이에서 6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비교적 여유 있게 자라났으나 조부의 사망과 함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북간도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귀향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말대로 ‘태평스러운 조국이었다면 순탄한 생애로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 운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에도’²⁴⁾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겪어야 했던 기막힌 체험이었던 것이다. 14세 때 일어났던 3.1운동때는 일본 헌병들의 강압적인 위협과 공포 분위기의 조성, 마을 사람들을 향한 총칼의 잔인함 등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의 민족정신과 항일 사상은 깊어지게 되었다.

고향에서 서당교육과 소학교 교육을 마친 이산은 서울로 유학하여 19세에 중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早稻田大學 第一高等學院 英文科에 입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평생의 知友가 되었던 李軒求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문학에 관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산은 早大 제일고등학교 2학년때 조선인 동창회가 발행하는 「알(卵)」지에 시 <모기장>을 발표하였는데 그 시의 내용이 항일정신을 주제로 한 민족사상의 고취였다. 이 시의 발표로 그는 鄭寅燮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연하여 시에 전념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해외문학연구회」의 동인들과 가까운 친교를 맺게 되었다. 그 후에도 몇 편의 작품을 더 발표하였는데 이 때의 작품들 역시 민족의식이나 저항의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나중에 일경에게 체포되었을 때 더욱 고통을 당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24세때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早稻田大學 영문과로 진학하여 본격적인 영문학도가 되는데 이산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들이었던 바이

22) 김광섭, “관념과 미학과 현실 - 이산 김광섭씨와의 대화”, 「문학사상」, 1973. 4.

23) 김광섭, “나의 獄窓日記”, 「자유문학」, 1961.5~1962.6.

24) 김광섭, “내 생애와 시에의 수기”, 「시문학」, 1974. 10, p. 69.

론. 키츠. 셸리등이었다. 그러나 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시의 조선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애란의 민족문학에 관심을 쏟으면서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비판력을 키워 갔다.

이산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²⁵⁾이었으며 그 관심이 일생을 통해 지속되었던 시인이었다. 그의 졸업 논문이 「사회극작가로서의 Galsworthy연구-- 사회사상에 대한 관점에서」 였는데 이러한 사회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71년 (67세)에 발행되었던 제5시집 「김광섭 사회시집--反應」에 이르도록 평생을 두고 견지되었다.

27세(1932년) 때 이산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봄에 모교인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였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애란의 민족문학을 소개하면서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극예술연구회」에 가담하여 함대훈, 이현구와 함께 극단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산은 「극예술연구회」 참여동기를 '내가 이렇듯이 극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기실은 애란 문예운동을 우리 현실에 옮겨 일체가 말할하려는 민족정신을 미약하나마 그 운동으로 되살려보려는데 그 뜻을 두었을'²⁶⁾만큼 민족운동에 모든 관심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이산의 영향으로 중등학교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자 1941년 2월 21일 현직교사의 신분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체포·구속되어 1944년 9월까지 만 3년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이산의 구속과 투옥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건이었다. 1930년 당시에 우리 나라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 현실을 보면 '일제는 1932년 1월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건설, 대륙 침략의 실체를 드러낸다. 일본은 1931년 9월 의도적인 도발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군국주의는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마침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5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써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핍박과 착취를 당하게 된다. 이같은 15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또한 크게 변화한다. 1920년대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저항의지는 점차 사그러져 일부 뜻있는 사람들만이 체제 저항의 불씨를 키워간데 반해 대부분의 경우 대체로 체제에 동조하고 시국에 순응하는 쪽으로 행동방향을 정하게 된다. 거리마다 전쟁을 부추기는 격문이 나부끼는 가운데 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의 참모습이었다'²⁷⁾

이처럼 30년대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사가 일반적으로 민족적 저항의식의 측면에서 퇴조를 나타냈던'²⁸⁾때였으며 '용기 없는 자의 눈에는 도저히 광명이 비칠 것 같지 않던 암담한 현실이었던'²⁹⁾ 시기로 대부분의 문학자들이 친일단체를 조직하

25) 신경림, "김광섭론", p. 161.

26) 김광섭, "나의 이력서" ⑦, 「한국일보」, 1977. 2. 23~5. 3.

27)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의 문학연구」, 새문사, 1991, p. 188.

28) 조병춘, 「한국 현대시사」, p. 220.

여 반민족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할 때에 이산의 민족정신의 고취와 그로 인한 3년 8개월(1941.2~1944.9)이라는 장기간의 투옥은 당시와 같은 암흑기를 밝히는 불빛과 같은 행적이었으며 우리민족의 자존을 과시하기에 충분하였고 투옥기간중에 유치장 벽에다 기록했다는 옥중시편들과 그때의 체험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시편들은 우리 저항문학의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이산은 '문학은 시대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산다'³⁰⁾는 생각을 가졌으며 '자기시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온다'³¹⁾고 말하였다. 또 이산은 '시는 나에게서 단순한 감정이나 서정이 아니었다. 시인은 민족의식의 침단에 선다. 우리의 상황의식이 곧 민족의식이 되었다. 그런 관념이 나의 모든 감정의 저변이 되고 정신의 지주가 되어 그 관념이 동력화하여 옥고까지 겪게 되었다'³²⁾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모든 문학행위는 민족의식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8.15 해방후의 이산의 행적은 ① 문인으로서 좌익에 대항한 민족문학운동의 전개 ② 신문인으로서의 언론활동 ③ 미 군정청 공보국장및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의 관계(官界)활동 ④ 「문학」(1950.창간호로 끝남), 「자유문학」(1956-1963.11)등의 발행인으로서의 출판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시인으로서는 드물게 폭넓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산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민족정신으로부터 발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은 만 60세가 되던 1965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극적으로 회생한 후 10여년의 투병생활동안 대외적인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왕성한 시작생활을 통해 그의 생존을 확인해 가다 1977년 5월 23일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 시인이 짧지 않은 문학 생애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심과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다른 시인들이 그들의 시적 세계를 다양하게 변모시킬 때 받는 평가와 같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며 우리 문학사에서 이러한 일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학사에서 이산의 경우만큼 자기가 처하였던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던 시인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현실에서 회피하지 않고 저항하고 개선시키고자 했던 이산의 저항의식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지속되었던 것이다.

2. 이산의 시세계

이산 김광섭(1905~1977)은 우리 문학사에서 드물게 긴 문학활동을 했던 분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산이 정식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을 1935년 <詩苑>지에 시 <孤獨>을 발표

29) 조태일, "시인의 삶과 민족", p. 237.

30) 김광섭,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 「백민」, 1948. 1.

31) 김광섭, "관념과 미학과 현실", p. 306.

32) 김광섭, "나의 獄中記", 창작과 비평사, 1976.

하면서부터로 잡으면 그의 시작기간은 약 42년에 이르고 그의 생전에 출간했던 시집은 6권에 이르며 작품 수는 270여편에 이른다. 1938년 제1시집 「憧憬」, 1949년 제2시집 「마음」, 1957년 제3시집 「해바라기」, 1969년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 1971년 제5시집 「金斑變 社會詩集 反應」을 내었고 1974년에는 「金斑變 全集」을 발간하였다.

이산의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흔히 2기³³⁾ 또는 3기³⁴⁾로 나누어서 그 변모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본고에서는 일제하에 발간된 제1시집 「憧憬」과 해방후에 발간되었으나 수록된 대부분의 시들이 일제말기에 쓰여졌거나 일제말기의 감옥생활의 체험을 소재로 한 제2시집 「마음」을 제1기로 잡고, 고대하던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과 해방후에 펼쳐지는 혼란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또 다른 비애와 상실감에 젖는 한편 강렬한 생애의 의지를 표출해 낸 제3시집 「해바라기」를 제2기로, 뜻하지 않은 병마로 인해 죽음과 직면하고 난 후 깨닫는 존재의 재발견과 화해와 융화의 세계관이 그의 시적 세계에서 한 정점을 이루는 한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되는 사회비평 의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 제5시집 「반응」을 제3기로 구분하였다.

이산의 등단시였던 <孤獨>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산을 주목받게 하였다. '박용철은 이 작품에서 특이한 전율을 느낀다고 말해서 주변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으며'³⁵⁾ '당시로서는 하나의 새로운 성격의 지적인 시로써 시단의 화제'³⁶⁾를 모으기도 하였다.

내

하나의 生存者로 태어나 여기 누워 있나니

한 間 무덤 그 너머는 無限한 氣流의 波動도 있어

바다 깊은 그곳 고요한 바위 아래

내

33) 장백일, "김광섭론", p.258. 제3시집 까지를 전기(1965년 이상까지)로, 제4시집 이후(1965년 이후)를 후기로 잡는다면.

34) 신경림, "김광섭론", p.160. 「동경」 시대와 「마음」 전기가 그의 창작생활의 제1기였다면 「마음」 후기와 「해바라기」 시대가 제2기가 될 것이다.

김태룡, 「김광섭 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2. p.3. 제1기 「동경」 시대, 제2기, 「마음」, 「해바라기」 시대, 제3기 「성북동 비둘기」 시대.

염무웅, "김광섭 소론", p.179.

손종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p.151. 이산의 시세계를 편의상 초기(동경), 중기(마음), 후기(성북동 비둘기, 반응, 반응이후, 겨울날, 유고시)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면.....

최인호, "김광섭론", p.325.

35) 김광섭, "관념과 미학과 현실", p.300.

36) 김현승, "김광섭론", p.130. 신경림, "김광섭론", p.153.

고단한 고기와도 같다

맑은 性 아름다운 꿈은 멀고
그리운 世界의 斷片은 아즐타

오랜 世紀의 知層만이 나를 이끌고 있다

神經도 없는 밤
時計야 奇異타
너마저 자려무나

<孤獨> 전문

분명히 이 시는 당시 문단의 주류를 이루던 시문학과와 서정성이나 언어적 기교와는 다른 지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당시 시문학과에 속했던 지용이 '우리말의 극치에 도달한 시인이면서도 단순한 감각이나 감정밖에 더 찾아볼 것이 없었던'³⁷⁾ 감각의 시인이었다면 이산은 '감각보다는 지적인 것의 추구에 대한 노력과 획득'³⁸⁾에 기울어져 내용에 치중했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문학성을 '주제와 구성과 표현의 공감도'³⁹⁾라고 할 때 이 세 요소가 등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 가장 성공한 작품이겠지만 실제상으로는 이러한 실현이 불가능할 때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느냐에 따라 작품의 개성이나 평가 또한 달라질 것이다. 또, '시는 형식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진다'⁴⁰⁾고 할 때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시적인 내용이 된다.

시의 내용이란 '작품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본질적·기초적 사상'⁴¹⁾이라고 할 수 있는데 T.S. 엘리엇가 말한 '시는 사상의 정서적 동가물(Emotional equivalent of thought)'이란 시의 내용인 사상이 생경하게 시의 표면에 떠올라 올 것이 아니라 정서로 일단 환치되고 용해되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상이 녹아있지 못한 정서란 별다른 의미없는 것이라고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산의 시가 지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산의 시세계는 제3기로 잡을 수 있는 제 4시집 「성북동 비둘기」를 정점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65년 4월 22일 이산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주일을 혼수상태에서 헤매다 극적으로 회생하여 10여년의 투병생활에 들어가는데 그가 쓰러진 지 꼭 1년만에 썼다는 시 <봄>(1966.4.17 한국일보)은 제목 그대로 이산

37) 김현승, "김광섭론", p. 137.

38) 김광섭, "관념과 미학과 현실", p. 303.

39) 황현식, "암흑기의 묵시문학", p. 203.

40) 김현승, "김광섭론", p. 138.

41) 조연현, 「문학과 사상」, 세계문학사, 1949, p. 185.

의 생애와 시에 있어서의 새 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차츰 지붕이 겨울집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데서 시작할 때도 온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 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相見禮를 이룬다
 꽃은 짧은 가을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다락에서 묵은 빨래몽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줄줄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봄> 전문

죽음과 삶이 상견례를 하는 지점에서 돌아서서 이산은 자기의 정신이 예전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죽음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다. 죽음을 잊고 삶을 확인하기 위하여 쓰는 이산의 시는 죽음과 등을 맞대고 있는 삶에의 따뜻한 귀향이요 복잡하고 모호한 관념과 추상을 벗어 던진 근원예의 회귀에 도달했다. 이후 병상에서 쓴 시들을 모아 발간된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는 발표 즉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평자들에 의해 그의 대표작으로 말해 질만큼 완숙된 시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올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같은 새파란 아침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멧세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직한 마당은 커녕 가는데 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思想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성북동 비둘기> 전문

‘이 시의 탁월함은 사랑과 평화가 상실되어 가는 현대의 비극적 상황의 폭로와 고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그 각성에 있을 것이다’⁴²⁾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는데 이 후로 보여주는 이산의 시들은 생경한 관념의 노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관념과 기교의 조화된 모습들을 보여 준다.

발병이후 이산은 1977년 작고할 때까지 「성북동 비둘기」(1969), 「사회시집--반응」(1971), 「김광섭 전집」(1974) 등을 발간하는 등의 왕성한 시작활동을 계속하였다.

Ⅲ. 怡山 초기시의 특색

위에서 이산의 시세계를 3기로 나누었는데 그 중 일제하에서 발간되었던 제1시집 「憧憬」(1938년, 38편 수록)과 일제말기에 쓰여졌거나 일제하의 감옥생활의 체험들을 소재로 한 시들을 모은 제2시집 「마음」(1949년, 52편 수록)을 대상으로 이산 초기시의 특질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암시적 저항성

이산의 초기 시에서 지적되는 것의 하나는 관념적 추상성이다.

이산의 첫시집 「憧憬」은 ‘동경(憧憬)과 같은 희망적이며 명량한 분위기는 산산이 부서져 가는 차가운 현실속에서’⁴³⁾ 발간되었다. 대체로 한 시집의 제목은 그 시집중에서 대표작이라 할 만하고 시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憧憬」도 이산의 의표를 감지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산은 「憧憬」의跋文에서 ‘抽象된 世界를 가지지 못한 詩人의 生命은 疑心스러울 것이나 이 抽象된 世界란 現實을 通하여서의 理想이거나 反逆일 것이다. 그러므로 저 건너에 깃들여 있는 抽象된 世界의 거울은 곧 現實이요 現實없는 抽象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실이 바람직스럽지 못할수록, 극도의 절망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캄캄한 암흑 속에 처할수록 희망하는 세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절실히 된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희망의 세계는 불만족스런 현실에서 발을 딛고 바라보는 추상적 세계인 것이다.

투철한 역사인식과 사회현실에 민감히 반응하는 시인일수록 실제로 처해 있는 현실에 더 깊이 절망하고 고통하며 분노할 것이다.

42) 손중호, 「김광섭 시연구」, p.129.

43) 이현구, 「김광섭시전집」 序文, p.5.

그러나, 현편으로는 이처럼 절망과 분노속에 속절없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에 있어서 시인의 존재는 가장 비싼 문화의 장식일 수도 있었다면 그 시인이 처하여 있는 국가가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거나 하는 때에 있어서 시인은 그 비싼 문화의 장식에서 떠나 혹은 예언자로 또는 민족혼을 불러 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여져야'⁴⁴⁾ 마땅한 것이다. 그리하여, 암흑기에 처할수록 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시인은 '추상적이지만 동경의 대상을 지니고 그것이 던져 주는 빛을 향하여 어둠을 헤쳐 나간다'⁴⁵⁾

그렇기에 아무것도 동경할 것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이산은 감히 <憧憬>을 내세웠던 것이다.

은갓 詞華들이
無言한 孤兒가 되어
꿈이 되고 슬픔이 되다

무엇이 나를 불러서
바람에 따라가는 길
별조차 떨어진 밤

무거운 꿈 같은 어둠 속에
하나의 뚜렷한 形象이
나의 萬象에 깃들이다

<憧憬>

이산은 별조차 떨어진 캄캄한 밤에,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과 같은 꿈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뚜렷한 形象을 찾아내어 끌어오는 희망을 노래하였다. 이산의 시에는 <꿈>이나 <환상>과 같은 추상적 언어들이 다수 사용된다. 왜 구체적인 사실이나 존재를 그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뭉뚱그려 놓았을까. 이는 시대적 정황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 상황이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용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우회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게 된다.

이산은 그의 시의 특성이자 단점으로 지적되곤 하던 관념성에 대해 “약소 민족의 시인들에게는 관념이 강하다. 왜냐하면 그 시 자체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의식의 문제, 저항의 문제가 더 강렬해 지기 때문이다. 내 짧은 날의 시편들이 관념적인 견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나로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⁴⁶⁾고 말하여 그의 시의 관념과 모호한 추상성이 우리

44)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6. p.143.에 인용된 이헌구 「해방기념시집」 序文.

45) 최인호, “김광섭론”, p. 329.

민족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상황아래서 사회적 현실에 민감했던 시인이 취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슬회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용운(님의 침묵),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청포도), 윤동주(서시)의 경우에도 그들의 시 속에는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제하에서의 우리의 문학활동은 모두가 일종의 저항문학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시인의 행적과 시적인 성과를 동시에 살펴 저항문학의 개념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회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일지라도 위의 저항시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우리 민족 대다수가 절망하여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자세를 취할지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문학이 판을 치는 때에, 또한 어느 누구도 민족의 해방을 기대조차 하지 못한 때에 그들은 해방을 희망했고 예견했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한용운(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의 침묵>), 이상화(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청포도>), 윤동주(등불을 밝혀 어두움을 조금 내물고/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쉽게 쓰여진 시>)에서 처럼 저항시인이란 직면한 실제적 현실을 거부하고 항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암흑의 시기에 한 줄기 불빛을 던져 새로운 용기와 이상을 갖게 하는 예언자의 구실까지도 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의 추상성은 현실적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여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암시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념과 서정의 통합성

많은 평자들은 이산의 초기시가 관념 즉, 사상 또는 내용이 지나치게 노출됨으로 인해 문학성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산의 초기시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현승⁴⁷⁾은 이산시에 드러나는 관념적 표현은 감각언어가 발달한 우리말의 특질에서 복잡한 사상성을 표현해야 했던 지적인 시인들이 부딪쳤던 난관으로 우리말에서 관념어의 불충분 내지 빈약의 한계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신경림⁴⁸⁾은 이산의 시 곳곳에서 산전되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관념어의 노출은 지적인 시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으로 시적 기술의 미숙이나 재능의 결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즉, 그때까지의 우리 시에서 이산처럼 시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시에 의미있는 내용을 담아 보려고 했던 시인은 없었기 때문에 이산의 시에서 지적되었던 관념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46) 김광섭 '관념과 미학과 현실', 「문학사상」, 1973. 4. p. 302.

47) 김현승, "김광섭론", p. 138.

48) 신경림, "김광섭론", p. 155.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의 주지주의 계열의 시나 김현승의 시에서도 이러한 관념어의 노출은 자주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산의 초기 시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곳곳에서 관념어가 그대로 들출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金銀을 실러 가는 것도 아니요
 羊皮를 사러 가는 것도 아닌
 나의 想像는
 大地의 슬픈 날맞이를 가다가
 푸른 草原을 얻어
 오늘은 잠깐 풀잎을 뜯는다 <나의 想像>

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는데

이 久遠한 밤의 神秘가 表現을 希望하여 그대의 肉體를 얻은 날
 自然은 소리없이 타는 無限한 語彙를 그대에게 갖추었으니
 이제 그대는 失明한 白日을 비켜 神의 부르는 소리를 홀로 기다리느냐
<올빼미>

悲哀의 言語를 쫓아내고
 信念의 中世를 쫓아내고
 時代의 苦悶을 쫓아낸뒤 <空冥>

先見을 말하고 抱負를 傳하던 者
 허물어진 名聲을 貪하여 背叛할지라도
 그대는 그 거울에 푸른하늘을 잃지 마라

思惟의 向方과 論理의 位相이
 모두 그 座標를 잃을지라도
 背理는 씻을 수 없는 永遠한 黑點이다 <青春>

등에 이르러서는 관념의 노출이 지나치게 극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산이 시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커서 전체적인 시의 구도를 허물고 내용만 튀어나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평자들이 이산 시의 미숙성이나 결합으로 지적했던 것이 초기시의 관념성이었던 것은 바른 지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케 되는데, 이산 자신⁴⁹⁾도 이 점에 관하여 아쉬

49) 김광섭, 「憧憬」跋, 「김광섭시전집」, 일지사, 1974, p.97. 表象의 世界에 意圖를 포함도 없지 않아서 知性과 感性이 融合하여 흐르는 論理를 놀라운 形象속에 넣

워 했음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산의 시들이 모두 관념에 빠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시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또한 도처에서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한 서정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비가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綠陰이 종이가 되어
 금봉어가 詩를 쓴다

<비 개인 여름 아침>

에서 우리는 말갭게 씻긴 초여름의 신선함이 피부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적 기교나 순수한 정서의 표출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시문학파의 작품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산의 시적 범주나 시어의 구사가 결코 편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는 내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는 말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시 외에도 맑은 서정의 세계나 순연한 언어의 구사는 자주 눈에 띈다.

한 송이 꽃에 애기가 머물고 눈 날리는 아침
 머언 숲 속에 깃들인 까치 한 마리 불렀으니
 까치야 까치야 나의 손님을 모셔다 주렴
 멀리 그림던 애기 한마디 더하고 싶다 <까치>

달은 西쪽 하늘에 나직이 걸리고
 새벽 어둠에 머리를 빗을 제
 내 그대를 찾아 잠을 다시금 깨다 <幻像>

달이 떠서 바위 위에 소스라쳐 깨치니
 솔앞에 밤바람이 싸늘하여
 나는 갈 길 없는 나의 길 위에
 고달픈 그림자를 앞세우다 <길>

이처럼, 이산 시에서 보이는 두 이질성, 즉 관념적 내용이 돌출되는 知的인 요소와 무심하리만치 깨끗한 서정의 세계는 그의 초기시에 대한 평자들의 평가를 유보하게 하기도 하고 이산 시연구가 부진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으니 30년대 벽두에 시문학파의 청정한 서정의 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산의 수채화와 같은

으려 하였어도 結局은 여기에 言及할 바 되지 못하고 말았다. 才能은 알고 藝術은 깊다 함이 感想의 모두다.

몇몇의 서정시들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서지 못하였고 이산의 지적이고 관념적인 시들은 비슷한 시기에 문단을 품미했던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에 가려 또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산 시의 복합성은 30년대의 문학을 논할 때 명쾌하게 어느 유파로 구분시킬 수 없는 고립성과 비특징성으로 나타나 그의 초기 시에 대한 평가를 시적 기교의 미숙이나 형상화의 부족 등으로 과소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산의 초기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포괄성이다. 시문학과의 지나친 기교주의나 모더니즘파의 생경한 주지주의는 모두 일방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후대의 평자들은 30년대의 문학을 보다 간편하게 세분시킬 수 있었고 이를 30년대 문학적 특성으로 뽑아내기도 하였다.

일방적 편향성이 30년대 문학의 특색이기도 하면서 각각 앞선 유파들의 모순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아래 30년대의 문학이 전개되었다면 30년대 중반에 시작활동을 시작하면서 시문학과의 순수 서정시적 요소와 모더니즘파의 지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던 이산의 시에는 30년대 여러 유파들의 특성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이산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 될 것이다.

3. 소재의 특이성

끝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이산 시의 소재가 주는 특이성이다.

제2시집 「마음」에는 3년 8개월 동안의 옥고를 겪었던 옥중의 체험이 담겨 있는 <獄中詩>들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야 간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깊은 산 뿔골 속에
숨어서 우는
작은 새와도 같이

나는야 간다
푸른 하늘을
눈물로 적시며
아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나는야 간다

<離別의 노래> 전문

종로 경찰서 유치장 벽에 낙서처럼 써 놓았다는 시이다. 이 시에는 나라잃은 독립투사가 겪어야 했던 질곡과도 같은 아픔이 오히려 승화되어 투명한 슬픔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애에 불타는 젊은 투사가 결국은 자신이 가야할 곳이라고 예상했던 감옥에 들게 되자 차라리 담담해 지며 자기 몫의 아픔으로 감내하고자 하는 은근한 투지가 내포되어 있는 작품이다. 깊은 산 빗골에 숨어서 우는 작은 새와도 같은 시인은 잃어 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 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조국의 재단에 재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경우 시인의 시는 천진스러운 소박성을 띄기까지 함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二千二百二十四番
 罪人の 옷을 걸치고
 가슴에 패를 차고
 이름높은 西大門刑務所
 第三棟 六十二號室
 北便 獨房에 홀로 앉아
 <네가 광섬이나>고
 혼자말로 물어 보았다

三年하고도 八個月
 一千三百餘日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時間을 헤이고 손꼽으면서
 뚱뚱과 새수대야와 걸레
 젓가락과 양재기로 더불어
 추기나는 어두운 房
 널판 위에서 살아 왔다

여름이 길고 날이 무더우면
 나는 바다를 부르고 山을 그리며
 파김치같이 추근한 마음
 지치고 鬱憤한 한숨에
 불을 지르고 나도 타고 싶었다

겨울 긴긴 밤 추위에 물러
 등이 시리고 허리가 꼬부라지면

나는 슬픔보다도 주립보다도
 뒷머리칼이 하나씩 하나씩
 서리같이 세어짐을 느꼈다
 나는 지금 광섬이로 살고 있으나
 나는 지금 잃은 것도 모르고
 나는 지금 얻은 것도 모르고 살 뿐이다.

그러나 푸른 하늘 아래로 거닐다가도
 알지 못할 어둠이 문득 달려들어
 내게는 이보다도 더 암담한 일은 없다

그리하여 어느덧 눈시울이 추근해지면
 어데서 오는 눈물인지는 몰라도
 나의 눈물은 이제 드디어
 사랑보다도 運命에 속하게 되었다
 人權이 蹂躪되고 自由가 處罰된
 이 어둠의 報償으로
 日本아 너는 물러갔느냐
 나는 너의 나라를 주어도 싫다

<罰> 전문

1948년에 발표된 시로 일제하에서의 끔찍했던 감옥생활을 상기하면서 해방된 조국의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걸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제하에서의 저항시 중에서 이산의 시만큼 실감있게 망국민들이 당하는 고초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킨 작품은 없다. 이제는 되찾은 자신의 이름과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그토록 그리워 하던 푸른 하늘이었건만 문득문득 달려 드는 알지 못할 어둠때문에 이산은 암담해 하고 당황해 한다. 실체가 분명했고 민족 모두의 공동의 적이었던 일제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감옥 생활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저항의 실체가 무엇이었고 또 저항하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 조국의 모습에 이산의 눈물은 마를 줄 모르는 운명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저항시 중에서 이 시처럼 적나라하게 저항의 갈등을 표출시킨 시가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너의 나라를 빼앗지도 않겠지만 거저 주어도 싫을 만큼 자유와 독립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산인 것이다.

이 외에도 <獨房 62號室의 겨울>, <獄愁>, <獄窓에 기대어> 등의 시는 우리 문학에서 찾기 어려운 귀중한 체험을 담고 있는 시편들인데, 이것 또한 이산 문학의 중요한 특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結 語

지금까지 김광섭의 생애와 시작활동을 통해서 김광섭 문학의 저항성을 고찰하였고 김광섭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특색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일제하에서의 저항시인으로 언제나 거론되는 한용운·이상화·이육사·운동주 등과 같이 김광섭도 행적에 있어서나 시정신에 있어서나 모두 저항문학의 개념에 충분히 부합되므로 특히 빈약한 일제하의 저항문학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 30년대의 저항적 공백기를 메워주는 - 저항시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저항정신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 처한 실제적 상황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일원으로서, 또 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서 발로되었고 이러한 민족적 현실과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일생에 걸쳐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산과 그의 문학이 갖는 훌륭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4명의 시인들의 시적 성과물을 살펴볼 때, 모두 다 한 권의 시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의 시인의식 또한 그렇게 투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분량이 작가를 높이 평가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권의 시집이나 몇 편의 시만으로는 그들의 확고한 시인의식을 찾아 내기에 미흡할 것이고 그들이 이산과 같이 전 생애를 살았다 할 때 그들의 행적이나 시적 활동이 일관성 있게 같은 보폭을 취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산의 행적과 사회인식에서 보여 주는 그의 시정신은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김광섭 시에 나타나는 특질들으로써는

첫째, 암시적 저항성이다. 김광섭 시의 추상성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때에 취해지는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과

둘째, 관념과 서정의 통합성이다. 김광섭의 초기 시들이 30년대의 어느 유파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비전문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김광섭의 시에 30년대의 여러 유파들의 특징이 동시에 존재하는 통합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과

셋째, 소재의 특이성이다. 일제하의 우리의 문학에서 투옥의 경험을 직접적 소재로 썼던 시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우리 문학사에 몇 편이나마 실제적인 저항의 편린을 시로써 엿볼 수 있게 하는 김광섭의 시는 우리 문학에서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광섭은 자기의 생애를 <일제 36년 + 옥고 4년 + 분단 30년 = 나의 인생 70,

∴ 70 - 70 = 0의 인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스스로의 표현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김광섭의 사회적 관심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이 사회인식은 곧바로 민족정신으로 승화되어 행동으로 항거하고 시로써 저항하는 <저항시인>이 되게 하였고 해방 뒤에도 끊임없는 사회참여와 사회에 대한 기대와 비판을 버리지 않았던 투철한 시인적 소명에 살았던 시인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2. 김광섭, 「김광섭시전집」, 일지사, (1974.)
3. , “나의 獄窓日記”, 「자유문학」, (1961. 5~1962. 6.)
4. , “관념과 미학과 현실 - 이산 김광섭씨와의 대화”, 「문학사상」, (1973.4.)
5. 강창민, 「육사시연구 - 시정신을 중심으로 - 」,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6. 김병익 外,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7. 김용직,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9.)
8. , 「한국 근대시사 下」, 학연사, (1986.)
9. 김윤식, 「한국 근대작가 논고」, 일지사, (1985.)
10. 김태룡, 「김광섭 시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2.)
11. 김해성, 「현대 한국시사」, 대광출판사, (1987.)
12. 손종호, 「김광섭 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13.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의 문학 연구」, 새문사, (1991.)
14. 조병춘, 「한국 현대시사 - 신시에서 청록파까지」, 집문당, (1980.)
15. 조연현, 「문학과 사상」, 세계문학사, (1949.)
16. 채규관, 「한국 현대 비교 시인론」, 탐구당, (1987.)
17. 김현승,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1969. 봄.)
18. 손종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 존재의 재발견 혹은 사랑과 평화의 각성”, 「한국 현대시 작품 연구」, 학문사, (1989.)
19. 신경림,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1975. 가을.)
20. 신선규, “流水와 觀照 - 김소월과 김광섭에 대하여”, 「자유문학」, (1958.10.)
21. 염무웅, “김광섭 小論”,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신서 23, 창작과 비평사, (1984.)
22. 장백일, “김광섭론 - 傳記·시세계 탐색”, 「한국신문학특강」, 관동출판사, (1983.)
23. 정태용, “김광섭론”, 「한국현대시인연구·기타」, 어문각, (1976.)
24. 조태일, “시인의 삶과 민족 - 이산 김광섭의 경우”, 「창작과 비평」, (1977.가을)
25. 최인호, “김광섭론”, 「한국 현대시인연구」, 태학사, (1989.)

-
26. 한계전, “김광섭의 성북동 비들기”, 정한모.김재홍,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 (1983.)
 27. 황헌식, “암흑기의 묵시문학”, 「창작과 비평」, (1975. 겨울.)

A study on Kim Kwang-sup's poetry in early days

Chang, Sun-hee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College

> Abstract <

In this thesis, I looked about Kim Kwang-Sup's life and his poetical activities, I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n his poetry in early days.

In result, I reached the conclusion that he is to be estimated as the resistant poet as Han Woung-Un, Lee Sang-Hwa, Lee Yuk-Sa, Yun Dong-Ju under the Japanese control because his activities and poetical world accorded with the concept of the resistant literature.

Also, his characteristics of poetry in early days are as follows

1. Suggestive resistance
- 2, The unification of idea and lyricism
3. The particularity of the subject matters.